

I. 상담실적

- 상담기간: 2026. 10. 23.(금) 07:00 ~ 2026. 10. 25.(일) 22:00
- 상담건수: 927건

II. 주요의견 내용

○ 방송 호평(3명)

-프로그램명 : 「동네 한 바퀴」

-방송일시 : 2026. 10. 24.(토) 1TV (19:10-20:05)

고향이 진안인데도 알지 못했던 좋은 곳들을 소개해 주어 재미있었다. 가위의 종류가 이토록 많은지 몰랐는데 가위박물관을 통해 알게 되었고, 홍삼도 맛이 궁금해 구매해 보려 한다. KBS에서 이런 진귀한 방송을 해주니 시청자들은 행복하다.

○ 극본 제언(12명)

-프로그램명 : 일일드라마 「욕망의 덧」

-방송일시 : 2026. 10. 23.(금) 2TV (19:50-20:30)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시청해야 할 저녁 시간대에 사람을 때리고 피를 흘리는 잔인한 장면이 자주 등장해 시청하기 불편하다. 자극적인 소재와 폭력적인 장면을 반복하기보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희망을 느낄 수 있는 내용으로 전개해 주기 바란다.

III. 청원현황

- 신규청원
 - 없음.
- 이슈청원 및 특이사항
 - 없음.

※ 참고: KBS홈페이지->시청자권익센터->시청자청원(<http://petitions.kbs.co.kr>)

IV. 일일 상담내용

1. 상담실적 : 총 927건

○ 형태별 분류

전화	인터넷	우편·FAX	방문	ARS ¹⁾	계
526	26	-	-	375	927

○ 채널별 분류

1TV	2TV	라디오	DMB	인터넷	非채널	계
463	357	20	-	2	85	927

○ 내용별 분류

의견제시	단순문의	기타	계
178	749	-	927

○ 분야별 분류

방송	기술	경영	기타	계
807	2	46	72	927

시청자 의견	문 의
【편 성】 ○ 「데뷔 40주년 콘서트 조수미의 앙코르」 - 재방송 요청 ○ 「일꾼의 탄생 3」 - 전국방송 편성 제언 【시사·교양】 ○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 방송 호평 ○ 「동네 한 바퀴」 - 방송 호평 ○ 「일요진단 라이브」 - 방송 호평 ○ 「한국인의 밥상」 - 진행자 제언 【연예·오락】 ○ 「백수 이세돌」 - 방송 호평 【드라마】 ○ 일일드라마 「욕망의 덧」 - 극본 제언 【라디오】 ○ 「정관용의 시사본부」 - 출연자 제언	【방 송】 ○ 「6시 내고향」 - ‘어죽, 도리뱅뱅이’ 연락처 문의 51건 ○ 「동네 한 바퀴」 - ‘홍삼돈가스’ 연락처 문의 43건 ○ 「불후의 명곡」 - ‘방청’ 문의 40건 ○ 「2TV 생생정보」 - ‘사과농원’ 연락처 문의 26건 ○ 「인간극장」 - ‘출연자’ 연락처 문의 24건 【기 술】 ○ 「난시청」 문의 1건 ○ 「주파수」 문의 1건 【경 영】 ○ 「홈페이지」 문의 30건 ○ 「프로그램 구입」 문의 10건 ○ 「사업 및 행사」 문의 4건 ○ 「주차」 문의 2건 【기 타】 ○ 한전 문의사항 포함 72건

1) ARS 항목 상세내용: 제보, 홈페이지문의, 프로그램 구매문의, 출연자 및 출연업체 전화번호 안내

2. 프로그램별 의견

의견	세부내용
[편 성]	
재방송 요청	○ 「데뷔 40주년 콘서트 조수미의 앙코르」 (1명) - 2026. 10. 9.(금) 1TV (19:00-20:30) - 성악가 조수미 씨의 노래를 좋아해 본방송으로 콘서트를 재미있게 시청했다. 다시 감상할 수 있도록 재방송 편성을 부탁한다. ※의견제시자 : 익명
전국방송 편성 제언	○ 「일꾼의 탄생 3」 (1명) - 1TV (금) (19:40-20:30) - 같은 수신료를 납부하는 시청자임에도 지역에 따라 본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이 나뉘는 것이 참 아쉽다. 대구에서도 본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전국방송으로 편성해 주기 바란다. ※의견제시자 : 익명
[시사 · 교양]	
방송 호평	○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1명) - 2026. 10. 24.(토) 1TV (05:10-06:00) - 예전에 방문했던 적이 있는 대둔산이 잠시 소개되었다. 오래전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했는데, 가을에 방문해 케이블카를 타고 감도 사 왔던 추억이 떠올랐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추억 속 장소를 볼 수 있어 반가웠다. ※의견제시자 : 익명

의견	세부내용
방송 호평	○ 「동네 한 바퀴」 (3명) - 2026. 10. 24.(토) 1TV (19:10-20:05) - 고향이 진안인데도 알지 못했던 좋은 곳들을 소개해 주어 재미있었다. 가위의 종류가 이토록 많은지 몰랐는데 가위박물관을 통해 알게 되었고, 홍삼도 맛이 궁금해 구매해 보려 한다. KBS에서 이런 진귀한 방송을 해주니 시청자들은 행복하다. ※의견제시자 : 익명 외
방송 호평	○ 「일요진단 라이브」 (1명) - 2026. 10. 25.(일) 1TV (08:00-09:00) - 몰랐던 정보를 새롭게 알게 되고, 이해가 어려운 내용도 화면을 통해 쉽게 설명해 주어 유익하다. 교육과 감동은 물론 깨달음도 얻을 수 있는 보석 같은 프로그램이라 바쁠 때를 제외하고는 꼭 시청한다. ※의견제시자 : 익명
진행자 제언	○ 「한국인의 밥상」 (2명) - 1TV (목) (19:40-20:30) - 최수종 씨의 목소리와 진행이 「한국인의 밥상」 특유의 차분한 분위기와 잘 어우러지지 않아 아쉽다. 프로그램의 정체성과 시청자의 몰입도를 고려해 음식과 사람들의 삶을 깊이 있고 진정성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진행자로 교체해 주기 바란다. ※의견제시자 : 익명 외

의견	세부내용
[연예 · 오락]	
방송 호평	○ 「백수 이세돌」 [첫 회](2명) - 2026. 10. 23.(금) 2TV (20:30-22:00) - 이세돌 씨의 출연이 신선하다. 익숙하지 않은 일에 어색하고 당황하기도 하지만 웃으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인간적이고 보기 좋았다.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앞으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이세돌 씨의 모습이 기대된다. ※의견제시자 : 익명 외
[드라마]	
극본 제언	○ 일일드라마 「욕망의 덧」 (12명) - 2026. 10. 23.(금) 2TV (19:50-20:30) -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시청해야 할 저녁 시간대에 사람을 때리고 피를 흘리는 잔인한 장면이 자주 등장해 시청하기 불편하다. 자극적인 소재와 폭력적인 장면을 반복하기보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희망을 느낄 수 있는 내용으로 전개해 주기 바란다. ※의견제시자 : 익명 외

의견	세부내용
[라디오]	
출연자 제언	○ 「정관용의 시사본부」(1명) - 2026. 10. 24.(토) 1R (12:10-13:58) - 특정 정당에 편향된 패널이 출연해 재판 결과가 번복되기를 바라는 듯한 발언을 했다. 수신료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공영방송에서는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인 패널을 섭외해 주기 바란다. ※의견제시자 : 익명